

3.1정신으로 남북통일위해 눈물 흘릴 때

제91주년 3.1절 기념예배... 8일 경찰병원 위문



제91주년 3.1절 감사예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3.1절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년과 삼일만세운동 제9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시무)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갖고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문제 사과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년과 삼일만세운동 제9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시무)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갖고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문제 사과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년과 삼일만세운동 제9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시무)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갖고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문제 사과와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내용으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 선언문 ...

91주년 3.1절을 맞아

경술국치(庚戌國恥) 100주년과 삼일만세운동 제91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국권침탈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음을 고백한다. 또한 침탈된 국권 회복과 민족 자주·자결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언하기 위해 순교를 불사했던 신앙선진들의 정신을 되새긴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1%에 불과했으나 기미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3인의 민족지도자 중 16인을 비롯해 민족자존과 독립을 위한 무수한 인재를 배출했으며, 만세운동 당시 전국 각 지역의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만세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후로도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한 민족지도자 배출과 조국 근대화의 전지기지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과 세계관이 삼일만세운동과 기미독립선언문 등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진취적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발현되었음을 기억한다. 선진들의 이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우리 국민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다. 이에 우리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침략 당사자로서 역사와 각 국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군위안부문제 사과 외면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에 대한 참회를 의식해 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1. 북한 당국은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핵무장을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에 적극 동참하라.
1.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식량부족으로 생존위협에 처한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과 저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1. 정치권은 3.1정신을 본받아 국론을 하나로 하고 국가발전과 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2010년 삼일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91주년 삼일절기념예배 참가자 일동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예배 드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청 교회와 경찰청의 협의회 제35주년 감사예배 및 36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오전 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회와 경찰청협의회 주최, 서울청 서울경찰청목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고재동 목사(서울청 경목회 총무)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박재욱 목사(서울청 교경회 부회장)가 기도를, 은석교회 호산나 찬양대와 폴리엘합창단의 찬양이 있었다. 김진웅 목사(서울청 교경회 부회장)는 “진리가 주는 자유”란 제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국가와 경찰, 민생안정을 위하여 환영복 목사(서울청 경목회 부회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하였으며, 신동우 목사(서울경찰청 교경회장은 인사말씀을 전하고 이석 구로경찰서장에게 “평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경찰선교협력과 위민봉사에 남다른 본을 보여주었다” 감사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신 목사는 교경사업 유공 직원과 교회를 선정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교경 및 경목회장, 선교교범 교회에 서울경찰청 조현오 청장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러용덕 목사(서울청 경목회 고문)의 축사전달과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인사말씀을 통해 서울청교회와 경찰청협의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한다며 감사사를 했다.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어 서울경찰청대의 축하 연주와 김동영 목사(서울청 교경회 고문) 축사로 사회로 서울청 교경협의회 제36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임원선거에서 신임회장에 김진웅 목사(은석교회)를 추대했다.

했으며, 제3부에는 회장 신동우 목사 사회로 서울청 교경협의회 제36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임원선거에서 신임회장에 김진웅 목사(은석교회)를 추대했다.

소진우 목사 2009년, 2010년 성회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 · 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열방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저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2009년 1월	2009년 6월	2009년 10월	2010년 2월	2010년 6월	2010년 9월
3 김팔산기도원(임예제 원장) 5-8 일산동원교회(주영민 목사) 12-14 홍산교회(김영선 목사) 19-21 갈매산교회(오덕주 목사) 26-30 평촌교회(전교진)	1-4 안원교회(박영민 목사) 7-10 새문교회(김다수 목사) 11 한빛교회(김성택 목사) 15-18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2-24 안도산복음교회(장영환 목사) 26 임마누엘신앙센터(이수영 원장)	1 미가의디라(박영민 목사) 5-8 열린기도원(정문혜 원장) 12-13 정기노회 13-15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18-20 과천성교회(노영수 목사) 22 서부시절연합회(장대환 목사) 25-28 예림교회(정남기 목사)	1-3 한림교회(전복수 목사) 7 성리교회(권동희 목사) 9-10 천보산(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15-18 신교지침문 21 천보산(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22-24 평택성리교회(김동복 목사)	5/31-3 설립 16주년기념 축복성회(예복교회) 6-9 열방교회(신보현 목사) 14-16 갈매산기도원(이동관 원장) 21-24 새원교회(이영근 목사)	5-7 퇴계원성리교회(김동진 목사) 13-16 교단총회 26-28 성산교회(안성기 목사)
2009년 2월	2009년 7월	2009년 11월	2010년 3월	2010년 7월	2010년 10월
2-5 해방수양원(백재욱 원장) 6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9-11 옥산성리교회(박영선 목사) 16-18 칠곡전일교회(김삼호 목사) 23-25 소망교회(조성복 목사)	3 성수기도원(박정연 원장) 5-8 새문교회(김다수 목사) 13-15 신복교회(김성호 목사) 20-22 은원기도원(조은원) 24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5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진 목사) 12-13 수동기도원(이태희 원장) 16-20 신교지침문 23-25 천복목회(장영환 목사) 30-2 대흥교회(정남기 목사)	7 천보산(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8 불철 축복대(신복수 목사) 21 성리교회(권동희 목사) 26 화성교회(이영근 목사) 29-4.1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5-7 에스라신교센터(이진희 원장) 12-16 신복교회(박영선 목사) 19-22 임마누엘(조은원) 원장) 26-29 임마누엘(조은원) 원장)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은원기도원(조은원) 17-30 2주연속 부흥성회(예복교회)
2009년 3월	2009년 8월	2009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8월	2010년 11월
2-4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2-31 봄철축복대심방	6-8 목암교회(주화순 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무리교회(이재경 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김영식 회장) 27-29 총회임원교육	7-9 신성교회(김영선 목사) 14-17 해방수양원(백재욱 원장) 20-23 한빛교회(김성택 목사) 24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5 임마누엘신앙센터(이수영 원장)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정기노회 19-21 이평교회(황순주 목사) 22 오산교회(최신복 목사) 26-30 신교지침문(열산성)	2-5 수도산기도원(이영근 원장) 9-11 안원교회(박영민 목사) 16-18 열방교회(신보현 목사) 23-25 진전 오산교회(최신복 목사) 30-9.1 푸른초교회(김영철 목사)	1-3 신원성리교회(김영철 목사) 15-17 수원성리교회(김관구 목사) 22-24 대흥교회(정남기 목사) 29-122 할렐루야교회(전 영목사)
2009년 4월	2009년 9월	2010년 1월	2010년 5월	2010년 12월	
6-8 목암교회(주화순 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무리교회(이재경 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김영식 회장) 27-29 총회임원교육	4-7 에스라신교센터(이진희 원장) 10-13 봄철축복대심방(예복교회) 14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8-20 미원교회(이동관 목사) 21 민족복음화부흥사단(이수원) 25-29 신교지침문(25 부흥사단(이수원))	4-7 도곡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0 대평교회(오봉석 목사) 11-13 천보산(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18-20 미가의디라(박영민 목사) 24 신성교회(김영선 목사) 24 천보산(민족)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신원성리교회(최세길 목사) 29 갈매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6 성산수양원(윤호균 목사) 10-12 새원교회(김영선 목사) 17-20 평원교회(김관구 목사) 24-26 미원교회(이동관 목사)	6-8 예수비전교회(김순복 목사) 13-15 신성교회(조은남 목사) 20-22 평원교회(조은남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예복교회

손봉호 박사 “기윤실 운동은 실패했다”

“정직·검소·절제 운동했지만 사회 달라지지 않아… 자승자박이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검소하고 절제해야 한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2월 22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2010년 회원 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 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축사를 한 김대근 총장(숭실대)은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정신적 지도자, 혹은 정신적 규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낮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윤실은 남겨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자 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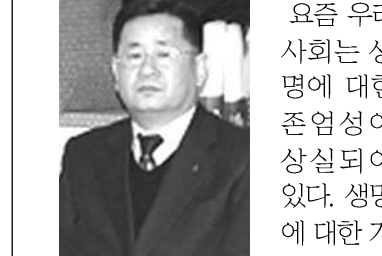
호 자문위원장은 “시민단체는 그 임무가 끝나면 해체하는 게 맞다. 단체는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인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타락케 하는 원인이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기윤실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정직운동과 검소, 절제 운동을 일으켰지만 사회는 별로 정직하거나 검소해지지 않았다. 자승자박이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검소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 보았니까요한복음 9:1~7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임성빈 공동대표는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것이다.”라며 “소경을 깨우는 제자들은 죄에 초점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낼 일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도 죄 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했다.

이어 기윤실의 2010년도 핵심사업에 대한 투표가 온라인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주요사업에는 ‘기독교시민교육 프로그램’과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가 뽑혔으며 협력사업에는 씨드스쿨(School in school, 취약계

층 중학생 비전코칭 및 학습코칭)이 뽑혔다

‘기독교시민 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여 말씀과 삶이 통전적으로 적용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하반기에 실행된다.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는 교회가 공적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 시행된다. 씨드스쿨은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중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멘토링 및 학습지원을 한다.



최창희 목사

현상이다. 그러기에 사고나 나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세상이 싫다고 나홀로 범행으로 수십 명의 아까운 생명을 뺏는다. 인터넷에서는 자살사이트가 부지기수다. 자살을 부추기고 프로그램까지 짜서는 자살을 안내해 준다. 그것은 삶의 반역이다. 종교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범죄다. 고귀한 생명을 낭만적 감성에 쉽게 세뇌된 현실이다

이제는 21세기가 끝나는 2010년이다. 대망의 22세기를 맞이하기 전, 법에 대한 준수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법의 의해서 질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법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회는 힘의 논리에 전락한다. 그러기에 강력한 법치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생명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조언을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좋고, 세종시 수정안도 좋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추락한 인간생명의 존중시대로 열어가야 한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반작용으로 인간성 상실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 생활조건이 나을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소외의 시대로 들어선다. 산업화에 따른 정신적 가치는 물질로 해결되는 황금만능의 시대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현대의 경제는 이윤의 확보와 잉여의 축적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은 사회발전의 중요한동력이다. 문제는 동력인 경쟁이 우리 사회에서는 비인격적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관료적이고 조직적이다. 명령과 임무 수행의 관료수직적과 인간보다는 조직이 우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점점 하나의 부속품으로 더러는 소모품으로 쓰여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법질서가 무너졌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필자는 그동안 모 신문들을 통하여 교통질서에 대한 칼럼을 수편 실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역주행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갔다.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재판부가 폭력혐의로 다스렸다는 뉴스였다. 앞으로 역주행 사고는 살인죄까지 적용시킬 것이라고 한다. 고무적인발상이다.

요즘은 전국어디서나 신호등을 안 지킨다. 신호를 지키는 차량 옆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나간다. 그 모습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신호등은 가장 작은 약속이 아닌가. 자동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는 약속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 약속을 깨는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북하다는 것이다. 전율을 느낄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교통질서를 확실하게 잡았으면 한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을 강하게 해야만이 한해 자동차사고로 아까운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다. 자동차 질서만 잡히면 크고 작은 범죄도 사라진다. 왜냐 바늘도둑때,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인간성애다 인간미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인간생명 존중의 시대, 결단코 멀리 있지 않다. 교통질서 하나만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 큰 범죄는 사라진다. 그리고는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 한 번쯤 참고해 불만한 국정 조언이 되었으면 한다.

(cjanghee, kbs.co.kr)

민총만 목사 세계치유선교센터 개원한다

내달 24일까지 유명한 부흥강사 초청

세계치유선교센터 원장 민총만 목사는 오는 3월 8일 오전11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4-4(태희프라자3층)에서 세계치유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개원감사예배를 드린다

원장 민 목사는 본원을 개원한 후 오는 3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국에서 유명한 부흥강사를 초청 매 일 오후 2시 / 밤 9시 등 2회에 거쳐

치유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개원예배는 조나단 목사가 사회를 맡고,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가 설교에 나서며, 축도에 최겸손 목사가 나선다.

이날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회 임택수 목사(대표기도), 김진기 목사(성경봉독), 윤영희 목사(봉헌기도), 김동국 전도사(특송), 조민행 찬양선교사(축가), 서울찬양물동신학원(봉

헌특송, 장사무열 목사, 신영광 목사(축사), 장창운 목사, 김평세 목사(격려사) 부원장 임효순 목사 등이다.

개원을 앞둔 원장 민총만 목사는 세미나의 특징을 이렇게 말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 나라를 방문하여 수많은 암환자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강력한 치유사역을 하고 있고 단 3일간의 이론과 실습을 통한 세미나로서 그 어떤 치유 세미나보다도 실제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아픈 성도들을 데리고와



원장 민총만 목사

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사역자로 거듭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과목은 축사 및 뱃사역장 기사 역임니다. 축사로 암병 불치병이 치유되고, 디스크 및 틀어진 뼈가 기도로 움직이며 제자리로 돌아가 치유가 됩니다. 현재 20차 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과 평신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치유받고 치유 사역자로 거듭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인터넷 기독교 카페를 주의하라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린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보의 바다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주의해야만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수많은 기독교 카페와 블로그가 있다. 필자도 기독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초신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단들과 사이비집단들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카페나 사람으로부터 카페를 방문해 달라는 메일이나 쪽지가 오면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한다. 심지어는 이단단체들이 ‘이단 연구’ 혹은 ‘정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단들의카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의카페 혹은 불건전한 카페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결론으로는 그 이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카페도 있으며 이단성을 가진 운영자가 카페를 드러내놓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학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운영자가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정작 문제는 인터넷의 경우 이러한 카페를 통제하거나 경고하거나, 심의할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 운영자나 소속 단체에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면 일단 경계하라 : 운영자가 어느 교회나 교단에 소속되었다든지, 운영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를 밝히지 않는 카페는 일단 경계하고 주의하여야한다. 필자는 운

영자나 소속단체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는 카페에 대해서는 일단 가입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싶다.

또 어느 단체와 소속을 밝혔지만 거짓으로 명칭을 속이는 위장단체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이단을 연구하는 기관에 확인을하여보라.

(2) 기존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을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부정하는 카페라면 조심하라. 정통 기독교와 다른 구원관 혹은 종말론을 주장한다든지, 삼위일체와 기독교인이 틀렸다고 주장하는카페는 이단이다. 특히 자신들의 교리나 신학과 다른 곳의 교리와 신학은 모두 틀렸다고 부정하는 곳을 주의하라. 정통신학은 오랜 시간동안 검증받은 가장 성경적인신학이다.

(3) 기존 성경해석이나 성경주석을 틀렸다고 하는 곳은주의하라. 난해한 부분의 성경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성경주석과 해석을 모두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부정하는 곳을 주의하라. 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곳을 주의하라.

(4) 어느 곳에서 수련을 하다가 비밀을 깨우쳤다고, 천사 혹은 성령의 방문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고하든지, 장시간 금식을 하다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곳은 주의하라.

지도자나 교주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적화는 이단들의 가장 공통된 수법이다. 특히 성경은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감추어진 책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5) 창세기, 다니엘서, 계시록 등 특정한 성경만을 강조한다든지, 예언, 심판, 재림, 휴거 등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곳을 조심하라.

그 카페가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지를 살펴 보라. 성경은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체적인 메시지를 균형있게 해석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성경만을 강조한다든지, 종말과 재림 부분만을 강조한다든지, 예언이나 선지서같은 신비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곳을 주의하라. 특히 예를 들자면,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만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거나 특정한 몇몇 성경구절만을 강조한다.

(6) 정통교단에서 이단 혹은 불건전한 단체라고 발표한 곳을 이단이나이라고 한다든지, 이단옹호 언론의 기사를 주로 올려 놓거나, 이단과 불건전한 단체의 문헌, 설교나 동영상올려 놓은 곳을 조심하라.

정통교단에서 발표한 이단들의 명단을 숙지하라. 그러나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단

으로 발표되었다고 하거나, 어느 단체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다는 주장에 속지 말라. 특히 이단옹호 성향의 언론사와 이단들이 만든 언론의 기사를 올려 놓는 곳은 동류의 이단이다.

(7) 가시적인 기적과 표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 혹은 영성운동이라고 강조하는 곳을 조심하라.

최근에 금가루, 금이빨, 쓰라짐과 같은 유치하고 현상적인 표적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다. 개인에게 압하여 구원으로 보증하고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변질시켜서 기껏 유치한 표적을 보여주는 사역으로 제한하는 불건전한 곳이며 신비한 현상을 통하여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곳으로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어느 장소나 어느 사람을 통하여 초능력적인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과장적인 광고에 주의하라.

다음의 말씀을 되새기며 불건전한 카페의 미혹을 주의하도록 하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고후 11:4).

/대림교회교회 이인규 권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협력상담위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 운영자
(http://cafe.naver.com/anyquestion.cafe)

서울 신학교 교사 준공감사에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인준 서울 신학교가 2월17일 오전11시 동작교 상도동126-16(서울 신학교 대예배실에서 신축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人格者, 使命者, 深究者, 牧羊者가 되자는 교훈아래 제1부 이사장 대행 권영만 목사(사회로 사직된 예배에 김대권 목사(부이사장)기도를, 이사 임 영 목사가 성경봉독, 특별 찬양에 본교 성가대, 중경총회장 최병남 목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다니엘 6: 10-12)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최 목사는 다니엘은 다리오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죽을 각오를 다해 기도를 해야 한다. 묵화의 성공은 하루 3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 할 때, 다니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까지 사랑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처럼 사랑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재천 목사(한국문인협회회장)가 축사를, 동작구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축사를 보좌관을 통하여 대독하고, 김정배 목사(서울지역노회협의회회장)축사를, 문세준 목사(총회부회복서기)가 격려사를 전하고, 김재선 전도사의 축가와 이동근 장로(이사회 회계)의 경과보고를, 학장 김춘환 목사는 설게 감리대표 신제홍, 시공사대표 염성길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최병책 목사(동문회장)의 공로패증장과 학장 김춘환 박사의 인사에 이어 서기 손은광 목사가 광고를, 재단이사장 김중학 목사 축도로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준공식에 들어가 테이프 절단식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서울신학교는 2007년 3월 22일 1,009㎡(305.2평)대지를 24억에 매입, 2008년 6월 5일 신축기공예배를 드렸으며, 2010년 2월 4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본교는 지하2층, 학장 5층 연면적 3,423.9㎡(1,035.7평)이다

/성순회기자 cjj01@naver.com

저지스티임즈 | www.JTNTV.kr JTNT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대표교문 : 피종진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지사]

총무권 지사장 : 박영우 목사(대전청 경목위원 전성인총무)
상임총무 양승섭 목사(대전서부경찰서 경목위원회장)

전남 목포지사 : 조광표 목사 광주 광역지사 : 정대성 목사
전북 전주지사 : 박주성 목사 대전 충청지사 : 라영수 목사
충남 서부지사 : 천현우 목사 경북 대구지사 : 이상락 목사
경남 진주시 : 김지수 목사 강원 춘천지사 : 박영남 목사
강원 원주시 : 정창민 목사 경기 수원지사 : 박기문 기자
인천 광역지사 : 민총만 목사 경기 부천시 : 한범우 목사
부산 마산지사 : 반철환 기자 제 주 지 사 : 신대성 기자

[해외지사]

우간다지사장 : 김기림 선교사 호주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미 워싱턴지사장 : 정형선 목사 일본지사장 : 전동용 목사(당진 평민교회)
태국 치앙마이지사장 : 전승주 선교사 필리핀지사장 : 이경철 목사(선교사)
인도 지사장 : 문홍기 선교사

논설위원 : 국장 최경희 목사(서산삼산성로교회)
위원 장승현 목사(당진 평민교회)
위원 지영철 목사(동서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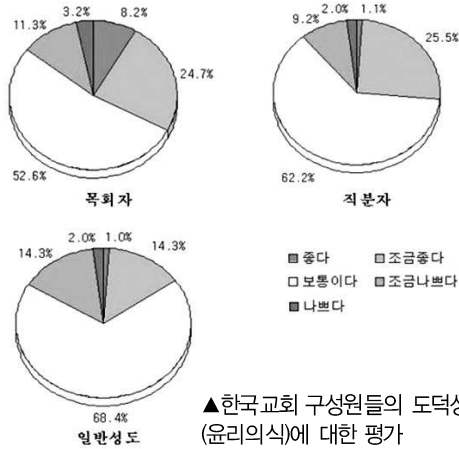
엘리트국 : 실장 김윤관
광 고 국 : 실장 성순호
포 토 국 : 실장 신화희 권사(포토기자), 한윤식 형제(포토기자)
이 사 회 : 사무총장 : 장철용 목사(열린찬양교회)
부 장 : 정태중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40-31
▶E-mail : jgn88@paran.com cupress-1@hanmail.net
▶전화 : 02)741-0031 ▶팩스 : 02)763-0221 070)8230-0032, 0034
▶대표 : 011)468-6574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농협 455030-56-005509

한국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의 도덕성 ‘보통’이다”

한국교회장로들은 목회자들의 도덕성(윤리의식)에 대해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당연한 결과지만 교회 내 직분자 및 일반 성도들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32.9%만이 목회자의 도덕성(윤리의식) ‘긍정적’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이하 교갱협)는 지난 5일 ‘교갱협 제3차 장로성감수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장로들은 ‘한국교회 목회자의 도덕성(윤리의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52.6%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2.9%(‘좋다’ 8.2%, ‘조금 좋다’ 24.7%)였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4.5%(‘조금 나쁘다’ 11.3%, ‘나쁘다’ 3.2%)였다. 도덕성과 관련 목회자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당연한 결과지만, 교회 내 직분자 및 일반성도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26.6%(‘좋다’ 1.1%, ‘조금 좋다’ 25.5%), ‘보통’이 62.2%, 부정적 평가가 11.2%(‘조금 나쁘다’ 9.2%, ‘나쁘다’ 2.0%)였다.

‘일반성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더 박해 긍정적 평가가 15.3%(‘좋다’ 1.1%, ‘조금 좋다’ 25.5%), ‘보통’이 68.4%, 부정적 평가가 16.3%(‘조금 나쁘다’ 14.3%, ‘나쁘다’ 2.0%)였다.

“교회 갱신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좌우”

또한 조사결과 장로들은 ‘교회 갱신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며 이를 위해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이 가장 먼저 요구된다’고 보고 있었다.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교회의 최우선 갱신과제로는 ‘리더십 개발’을, 교회 지도자들의 최우선 갱신과제로는 ‘영적 리더십’을 꼽은 것이다.

복수응답이 허용된 질문에서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갱신해야 할 것으로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영성, 도덕성 등) 개발’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예배의 갱신’(13.9%), ‘교회교육의 활성화’(11.2%), ‘사회봉사의 활성화’(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36.6%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덕성 회복’(25.1%), ‘창의적 비전 제시’(16.8%), ‘다음 세대의 이해’(7.9%)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갱협 제3차 장로성감수원회’ 참석자 400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된 103명에 대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5%(95%신뢰구간)다. /뉴스미션

웨신 중앙노회 최재필 목사 성전 이전 감사예배

안양 이전... 최 목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곳 찾아”



중앙노회 행복을 주는교회 이전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중앙노회·노회장 손찬현 목사(소속 최재필 목사가 지난 2월27일 오후2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재로 “행복을 주는교회”를 이전하고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최재필 목사(인도노예배가 시작되고 정일량 목사(증경노회장)가 기도를 감행하고 목사(부노회장)가 고린도전서4:1-2절을 봉독하고 본 교회 성도들의특별 찬양이 이어졌다. 이날 임철환 목사(증경 노회장은 “말은 자”라는 제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2부에 들어가 노회장 손찬현 목사는 행복을 주는 교회를 이전하

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최재필 목사를 담임으로 선포했다. 담임 최재필 목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곳으로 성전을 이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면서 오늘 찾아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크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예수사랑선교예수단의 위임축가가 있었으며, 증경노회장 정기남 목사(저지스티임즈 JTNTV방송 대표이사)가 축사를 맡았으며, 증경노회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성순회기자 cpj01@naver.com

필리핀선교사들 IT 컨퍼런스로 영상미디어시대 열려

교회정보화 기초강좌·사진 촬영 등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을 위한 IT 컨퍼런스가 21세기 영상선교 및 미디어 시대에 고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열악한 선교지 상황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는 마음을 조여 왔던 선교사들의 고충과 애환을 시원스레 풀어 주었다.

2010년 구정 주간인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팜팡가주 산타아나 소재 환돌미선비전선대(대표 홍 운 선교사)에서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선교사단체협의회(구 한선협)가 공동주최하고 백석총회 필리핀지부가 후원한 “선교사들을 위한 IT 컨퍼런스”에 중부 루순지역과 관련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IT컨퍼런스의 실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목회, FUN Church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서울 정릉소재 벤엘교회(www.funchurch.net)박태남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교회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개 교회들이 협력할 부분을 서로 내 놓고 연합할 때 지역 사회로부터 호응을 얻고 교회의 자연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음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모토로 세워진 사운드 레이스 회사를 통하여 각 교회들의 음향을 컨설팅하며 설치해온 허재호 실장은 음향의 개론과 시스템, 마이크 사용법, 스피커 설치 시 주의할 점과 방향, 앰프와 믹서 사용법, 음향기기 사용 시 주의 점 등을 목회자들이 궁금하게 여긴 부분들을 시원스레 강의해 주었다.

크리스천 IT 전문가들이 모여 IT 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세워진 (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www.citi.or.kr) 원장인 이동현 목사는 교회정보화 기초강좌 사진촬영, 사진제작, 동영상 만들기, 빔프로젝트 다루기,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혼신을 다해 참여한 선교사들에게 쉬우면서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노트북과 사진기를 가지고 참여한 선교사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장시간 계속되는 강의에도 피곤을 잊은 채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듣고 심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사진 편집물과 동영상작품을 바라보면서 서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한 그 동안 많이 해왔으나까 별반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던 선교사들도 이번 IT 컨퍼런스를 통해 큰 유익이 있었다. 며 홈페이지 제작매뉴얼 동영상 강좌, 각종 사진과 동영상 툴 등 자료들을 듬뿍 받고 흡족함을 가졌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쉬웠고, 컨퍼런스가 다시 열린다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참여해 미디어선교에 좋은 결실을 가져 올 것이라며, 이번 IT 컨퍼런스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과 기관에 감사할 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필리핀지사장 이경철 central9191@hanmail.net (www.pwmc.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석교회**



성흥경 목사
예장웨신총회 총회장

담임 : 성흥경 목사(웨신, 총회장), 성용구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99-4
☎031)204-5580

임마누엘 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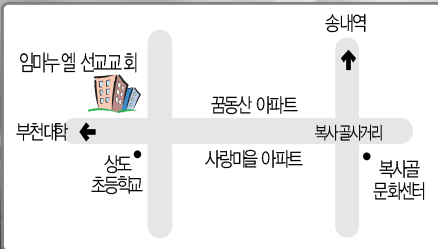
현 병 우 목사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청안교회**”

새 생명이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례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옵니다.

은혜를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장승현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청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 011-9027-9712

■ 가정예배 ■



소 진 우 목사
서울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제목 : 헛된 허비 거룩한 허비

찬양 : 찬송가 351장 성경 : 마태복음26장13절-13절
본문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화를 내며 이 귀한것을 왜 이유 없이 허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텐데 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협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허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욕심을 위한 헛된 허비를 하고 있지는않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헛된 허비가 아닌 거룩한 허비를 통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 기화는 기적을 낳는다

찬양 : 찬송가 351장 성경 : 마태복음26장14절-16절
흔히 사람들은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오고 기회가왔을 때는 확실하게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화는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소리소리 지르며 기적을 체험합니다. 즉 기화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롯이 많은 사람들이 기화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통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기회를 통해 음모가 아닌 기회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 아무에게

찬양 : 찬송가 351장 성경 : 마태복음26장17절-30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을 예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안 아무게는 누구일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집일 것입니다. 성안 아무게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도 모르게 큰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비록 성경에는 이

름도 없는 무명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역시 비록 무명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 축복의 열쇠

찬양 : 찬송가 348장 성경 : 마태복음26장31절-35절
사람들은 예배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속에서 고백 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역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칩니다. 이처럼 고백은 쉽지만 행동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축복의 열쇠인 언행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 이것이 기도이다

찬양 : 찬송가 484장 성경 : 마태복음26장36절-46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할 텐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분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순종의 본을 보이는 가정

찬양 : 찬송가 519장 성경 : 마태복음26장47절-56절
본문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갈로 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자신의 몸을 줍니다. 예수님은 56절 말씀처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역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설 줄 아는 순종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멀찍이

찬양 : 찬송가 453장 성경 : 마태복음26장57절-68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신문을

받고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아 하숙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멀찍이 예수를 쫓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아름다운 과정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찬양 : 찬송가 442장 성경 : 마태복음26장69절-75절
세상을 살다보면 아름다운 과정 없이는 아름다운 결과도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파나는 고통의 아름다운 과정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세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멀찍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베드로의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 역시 아름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과정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과정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성숙한 의논이 성숙한 가정을 만든다

찬양 : 찬송가 507장 성경 : 마태복음27장1절-10절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논들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죄와 비난하기 위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의논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비판과 비난의 의논으로 죽이기 위한 의논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살라는 의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의논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질 것을 소망합니다.

제목 : 십자가의 능력

찬양 : 찬송가 138장 성경 : 마태복음27장27절-66절
본문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대신 지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즉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우리들의 가정역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질이 아닌 변화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약속의 성취

찬양 : 찬송가 159장 성경 : 마태복음28장1절-15절

어떤 교회에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목사님을 찾아올 때마다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의 혀를 받아들이만큼 그렇게 큰 재단이 없어서 안타깝군요." 이처럼 사람의 약속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치않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하늘과 땅의 권세

찬양 : 찬송가 277장 성경 : 마태복음28장6절-20절
요즘 국회에서는 보궐선거 때문에 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곧 사리질 안개와 같은 권세를 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개와 같은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 이것이 순종이다

찬양 : 찬송가 377장 성경 : 열왕기상 20장30절-34절
하나님은 아람 왕을 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아람왕을 놓아줍니다. 여기에는 아람왕의 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람왕의 군사들이 자기왕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였기에 그는 아람왕을 살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것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 복음의 능력으로

성경 : 사도행전8장54절-60절 찬양 : 찬송가 268장
인생을 살면서 물질과 건강 때문에 또는 가정과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고 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테반 집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역시 더 이상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다시 오실때까지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가르치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우리아들 녀석이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우리는 왜 거지처럼 맨 날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아?"
"아니, 그건 무슨 말이야 얻어먹고살다나-"
"그렇잖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만 먹잖아"
"헐?"
"쌀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 다 그렇네."
아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장에 가서 사 먹지 않고 성도들이 가져 온 것만 먹는다는 말이다. 우리 부부는 이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목사를 위해 가져오는 제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것이 아니란다.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오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져오는 제물이다. 그리고 그 제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런데 아빠는 목사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없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이 가져 온 것을 먹고 쓰도록 해 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가져 온 것을 먹고 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과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것이 돈이던, 쌀이던, 과일이던,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쓰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밥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도, 학용품도, 차비도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주신 거룩한 제물들이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쓰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단순한 물건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에는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주신 물건들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들이 쓰도록 해 준 성도들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제물에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는 얻어먹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처럼 좋은 것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단다.? 그 한 번의 교훈은 아이에게 잘 주입이 된 것 같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전현구 목사
웨신총회 감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512-4
☎041)356-0688, 019)410-0688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 714-1426, 7236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석교회



담임 정재규 목사

(우 153-837)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3-64번지
☎. 02)803-4549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담임 장창수 목사

부목사	전정우
안수집사	윤호준, 김유두, 이경준, 이현식, 조경준, 차종윤

말씀으로 무장화!
기도로 능력화!
생활로 향기화!

447-140 경기도 오산시 결동 651-1
Tel : 031)373-1151, 377-9372
FAX : 031)372-2583

고신대, 200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김성수 총장 “청지기적 의식으로 섬김과 평화의 사역자 되라”

고신대학교(총장 김성수 박사)는 200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영도캠퍼스 예음관에서 가졌다.

1부 예배는 이상규 교목실장의 사회로 기도 성보경 장로(부총회장), 성경봉독 이영옥 권사(전국여전도회 회장), 설교 윤현주 목사(부총회장), 축도 권용수 목사(총회 서기)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윤현주 목사는 “마지막 부탁”(왕상 2:1~4)이라는 제목으로 “사회라는 새로운 무대로 출발하는 졸업생들 모두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대장부가 되라”고 설교하였다.

2부 학위수여식은 김종현 교무처장의 사회로 학사보고 이복수 부총장, 증서수여와 훈사는 김성수 총장이 하고 축사 김국호 이사장, 기부금 전달 이복수 부총장, 파송의 기도 신상현 목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수 총장은 훈사에서 졸업생들에게 “각 영역에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전할 사역자로 섬김의 지도자로, 평화의 사역자로 자리매김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국호 이사장은 축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최고의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



며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실력 있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200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의 졸업생은 박사 30명, 석사 123명, 학사 654명으로 총 807명이 학위를 받게 되며 여지신학원 32명, 선교목회대학원 부설 전문인선교훈련학교 50명도 함께 학위를 받았다.

전체수석자는 교회음악과 원경하 군이 수상하며 총회장상 영어영문학과 구성근, 이사장상 식품영양학과 심소람, 부산시장상 유아교육과

최은지, 영도구청장상 기악과 문수진, 총동문화장상 영어영문학과 김상규, 부산은행표창장 의료경영학과 송상호, 국제문화선교학과 박천식, 농협중앙회표창장 아동복지학과 윤솔지, 중국학과 전해린, 유아교육과 도미희, 경남은행표창장 영어영문학과 송지영,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장상 간호학과 이미선 학생이 수상하게 되었다.

학과별 수석자는 신학과 김성은, 기독교교육과 이희지, 국제문화선교학과 이은지, 국제문화선교학과 (아) 최성우, 영어영문학과 최지선,

광고홍보학과 최미라, 중국학과 한나, 유아교육과 박설희, 아동복지학과 최성혜, 의료경영학과 박혜림, 정보미디어학부 김석진, 생명과학부 김해진, 식품영양학과 강가은, 화학신소재학부 김민희, 사회복지학부 김현진, 디자인학부 황지혜, 보건환경학부 최경철, 기악과 왕수연, 의학과 전호수, 간호학과 남현정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학부 9명, 석사 6명, 박사 2명(수료자 1명 포함)으로 총 17명의 외국인유학생이 함께 졸업하게 되었다. 국적으로는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1명, 중국 10명(수료자 1명 포함), 캄보디아 2명, 케냐 1명, 필리핀 2명이다.

또한, 고신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물금교회(이용창 목사) 1천만원, 한청강 권사 1천만원, 김상진 장로 1천만원, 정태호 회장 1천만원, 할렐루야치과 1천만원, 중앙선교회 박성기 목사 7백만원, 괴정동부교회 3백만원, 하치호 목사(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미화 1천불과 장학금으로 송산문화장학회 이사장 박재석 장로 5백만원, 석성장학회 이사장 조용근 장로 장학생 3명 지원, 명예동문으로 임인순 전도사가 3백만원의 기금을 전달하였다.



사는 석사, 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총재상, 총장상, 학교장상 등이 수여되었으며, 학교가 졸업생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졸업생이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증정했다. 이어 정은주 박사가 축사를, 이상배 목사(기획처장) 인사 및 광고를,

증경총회장 정인금 박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총신은 전도사 과정 20명, 신학부 과정 59명, 사모학 과정 6명, 연구원 과정 79명, 목회대학원 과정 2명 등 167명을 배출하고 학위를 수여했다.

/경기북부지사 송기영기자

좌파 예술인과 문인(文人)들의 죄

지난 좌파 정권 시절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돌아나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휘어잡아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동하던 좌파 예술인들. 그런 그들이 요즘 이명박 정부에 할 말이 많은가 보다.

그중 일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좌파핵심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예술의 진흥을 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모두 지난 시절 김정일의 남한좌파 총동원령에 맞추어 광우병 사기극 난동 촛불집회를 옹호하고, 시국선언에 앞장서던 자들이었다. 소위 예술가 혹은 시인이거나 소설가를 비롯한 문인(文人)들 중에 좌파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흔히 반미투쟁을 선포하는 글이나 영화를 만들고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글을 쓴다.

문학과 예술의 목표가 ‘감동과 쾌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좌파문인들의 폐해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좌파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로 규정하고, 국가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내용의 현대사 역사 왜곡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문학과 예술의 좌파성은 실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는 지식이다. 지식은 한 인간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져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의 경우, 그것을 익힌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물의 가치를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 좌파역사학자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므로,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를 거부하고 전쟁이 나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하는 게 아니라 숨거나 도망을 치려고 한다. 지금 이런 현상이 청소년 세대에 만연되고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지식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며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예술과 문학이 주는 감동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감동이 주는 에너지는 당장 행동으로 변화하는 법이다.

그래서 민중을 선동하는 데는 역사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학이 동원된다. ‘월کم투 동막골’을 본 청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반미주의자가 되

고, 신경림의 시를 읽은 학생은 미군철수를 외치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회 저변(低邊)에서 어린 청소년과 국민들을 향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좌파 예술인들과 문학가들은 모두 죄인(罪人)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외치고 선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풍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2500만 동포를 노예로 삼고 자유를 빼앗고 진실을 감추고 마침내 생명까지 빼앗는 김정일 북한 공산독재자 일당을 돕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로 그들이 노력하는 반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대한민국 국가 부정, 이명박 정부 타도는 김정일의 적화통일전략에 따른 주요 사업이다. 그러므로 철이 없거나 미쳤거나 비겁한 대한민국의 좌파 문인들과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만약 좌파 문인들의 행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에도움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 쓰인다면, 나도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철이 덜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인(文人)들과 잘못된 이념에 아예 미쳐버린 예술인들, 그리고 지난 10년 좌파 정권 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어 오 늘날까지 양심을 숨기고 사는 비겁한 문인과 예술인들. 그들이 지금 내가 전하고자하는 뜻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자유로운 문학과 예술의 영역에서 오늘날 김정일을 추종하는 주사파 사회주의가 얼마나 넓게, 그 신성한 영역에 더러운 발을 딛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뒤로하고 우리는 추구하는 문학의 하늘을 다시 올려보아야 한다. 그 하늘이 왜 붉지 않고 파란 것인가를, 그리고 왜 구름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념도 시대를 따라 변하고, 변화를 따라 우리도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좌파 문인들도 영원한 좌파로 머무르지 말고 다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재환(한국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 시민정신작가회 회장, pimes는설위원)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간증집회

사랑나눔재단(이사장 박종욱)과 닉 부이치치(사진)는 26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닉 부이치치와 함께하는 희망축제(이하 희망축제)’를 열었다. 닉 부이치치는 1982년 생으로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욱 목사는 “닉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

는 사람으로 손색이 없다.”고 닉을 소개했다. 단상에 오른 닉 부이치치는 “여러 해 동안 이 교회에 오기를 기도했다.”고 운을 떼며 “오늘 저녁 하나로 함께서 내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닉 부이치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며



“난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는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닉은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평안을 주셨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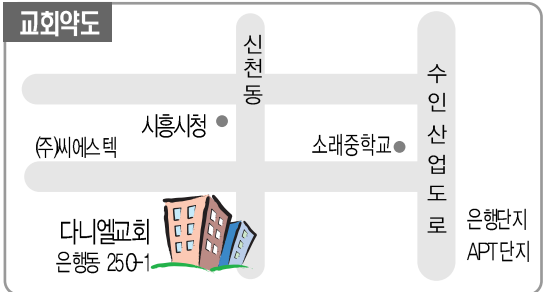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민음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담임 고성규 목사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 철 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 정 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절)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041)634-0441 (사무실)
041)633-9146 (목양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막리 9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김동락 목사

문의 : 031)968-0199
교회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19번지

논평

버릇없는 세상



천욱 목사
논평 「코담」

39세의 판사가 68세의 노인에게 “어디서 버릇없이...”라고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법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버릇이 없다는 말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지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자신이 마치 법위에 있는 착각에 빠져 모든 세상의 어른이 된양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도 솔직하지 못하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말은 더욱 비겁하게만 들고 있다. 사법부만 그러한가? 입법부는 어떠한가? 입후보 할 때 내세운 이력서를 보면 최고의 지성인

들이라고 떠벌린 그들의 자리에도 비속어가 난무하고 비아냥이 여전하고 때리고 부수고 책상위를 날아다니는 행위들이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진 모씨는 변 모씨에게 인터넷에서 들보잡(들보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용어로 공격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맞았다. 이들 모두가 지성인들이다. 신성한 법정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 그리고 대학의 강사로 한 때는 명성을 날리던 사람들까지 이런 용어들을 마구 써댄다는 데 적잖이 놀란다. 인터넷에서는 자신은 감추어진 사람일거라 착각하는 지 얼마나 많은 무례한 공격성 말들이 오가는지 모른다. 실명인 경우도 그러한데 비실명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더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막말성 언어로 공격부터 해놓고 본다. 80을 넘긴 전직 대통령을 마치 손자 다루듯 하지 않나 70을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기 집 개 부르듯 한다. 마치 막가파의 세상이 된 듯하다. 모두가 다 자신이 제왕이 되어 사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배웠는데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밑에 사람 없다” 라고 바꾸어진 세상이 되었다. 마태복음 24: 12에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5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했다. 결국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 되다보니 무례히 행하는 일이 성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무례히 행하는 일이 많아진 것을 보면 세상은 마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세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달리 많은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우울하고, 세상사의 버릇없는 급변적인 모습이 마음을 허탈하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경고의 나팔소리로 들려지기를 기대한다.



현병우 목사의 구원론 <8>

예수님의 보혈Ⅳ

롬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니시라.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이 허물과 죄로 죽였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의 의를 행하사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롬3:23-26) 이것이 곧 칭의인데 (롬8:3)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롬3:10)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하신 하나님앞에 의로울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사랑과 보혈의 축복으로만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엡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너무도 크신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하시는 말씀은 영이 죽었다는 말씀이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다는 말씀인데 롬3:23에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영광의 주 하나님 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다는 말씀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은 이제 우리 영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함께됨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베드로사도가 짧고도 간단 명료하게 정확히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뱀전 2:24-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죄에 대하여 죽고라 함은 죄와 상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즉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도 죄와 함께 못 박힘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은혜입니다(고후5:13-15)

베드로사도가 인용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사53:5-6 그가 찢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첫번째 그가 찢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심이 먼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고통받으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인데 우리의 허물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 하십니다 (막7:20-23) 사람이 태어나 저지르는 모든 우상숭배와 물욕 탐욕 음욕 각종 저지르는 허물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데이 생각은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죄의 본성이라함은 최초의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아담의 죄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 유전된 원죄이며 이 원죄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는 단회적이었는데 우리에게 원죄로 유전된 그 죄는 우리 안에 와서 각종 죄를 짓는 죄성 또는 죄의 속성 또는 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인데 바울사도는 롬7장 전체에서 이 죄의 본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생각은 머리에 있고 이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으로죄의 본성 저지른 허물을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심으로 담당하셨습니

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상함이라함은 창세기3:15에 뱀으로 나오는 사단마귀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라 하심으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죽게 할 것을 예표하신대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전된 아담의 죄 즉 원죄를 사하십니다.

세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신명기21:22-23에 이르신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갈3:13에 바울사도가 잘 정리하여증거했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곧 나무에 달리심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

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바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평강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의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한 저주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의 저주로 인한 가계의 흐르는 저주는 없는 것이며 나와 아무상관이 없고 조상들이 받을 저주가 내게 대물림 될 수 없는 것입니

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름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신24:16) 겔18: 1-32까지 예수그리스도 주님이 이땅에 오셔서 이루실 은혜를 너무도 확실하게 약속하셨으니 자세히 상고하시고 온전히 깨달으셔서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율법의 저주와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주 가운데죽은 내 조상들의 저주로 필요 없는 정죄에 빠져서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또한 잊지도 않는 저주로 사단마귀에게 속이고 고통 받는 일이 없으시길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계의흐르는 저주를 끊는다. 또는 조상들의 저주의대물림을 끊는다등의 사단마귀의 악한 계교에 속아서 십자가(나무)에 달려서 우리의모든 저주를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무시하는 흉악한 죄를 범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24:16, 겔18:1-32, 갈3:13을 자세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찢리심으로 머리에서나오는 모든 생각 (죄의 본성과 그 생각에서 나와서 저지른 모든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아담으로 유전된 원죄는 주님이 상하심으로(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나무에 달리심으로) 담당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넘치는 평강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 고통은 죄와 허물과 그로인한저주로 말미암은 것인데 주님께서 다 사하셨으며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한 질병 고통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담당하셨기에 오늘날 우리의 질병 고통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억압 질병 고통 모든 악한것을 채찍에 맞으신 우리주님께 맡겨드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으시는 축복으로 나가시기바랍니다.

아시아 선지자가 멀리서 본 예수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고 섬겼던 베드로 사도가 뱀전2:24에 잘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혈의 강에 한방울 들여 놓았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목협, 제16차 열린대화마당 “대형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손인웅 목사, 이하 한목협)는 25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한국 교회, 새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6차 열린 대화 마당을 열었다. (사연) 기조발제를 한 이원규 교수(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사회학)는 “위기의 때에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며 “그러나 한국 교회에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훌륭한 자산이 있다.”며 “한국 교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훌륭한 자산을 활용해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대사회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기윤실 공동대표는 “우선적인 과제는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믿음과 영성을 뿌리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뿌리를 보여 주려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듯이, 우리는 믿음보다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삶이다.”라고 했다. 정병길 목사(송파교회, 한목협 공동총무)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 희망이 있고, 성장을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성장 없이도 한국 교회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중심적 희망이 아닌 민족과 역사 앞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논찬했다. 마지막으로 논찬한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CTK 편집위원)는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문화

는 심각하다. 특히 안티기독교 운동은 이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도 옮겨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공신력은 중요하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공신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 사회에 대한 봉사과 작은 교회를 배려하는 것이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위해 작은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논찬 후에는 이원규 교수의 논찬에 대한 소견 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다. 열린 대화 시간에는 “크리스찬 언론인을 양성해서 사회와 소통하자”, “평신도지도자들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뉴스파워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을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천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천년기도회
각구역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가정	매일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왕1동 1409-10
TEL. 031-384-6826

서울예일신학(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운영

www.syeil.com
전 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김봉주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IWA영재교육	오후 1:00(토)
알파과정	오후6(주일)	총 · 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플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리크스퀘어

동부빌딩

오산반석교회

영광이

광장

대림이

이리안

세상

아미트

우리은행

이마트

오산1C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전도 집중 말씀 집중]특별집회

부흥회+전도집회+재제세미나+교사세미나+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도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저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전국 교회기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SBS ‘제중원’, 선교사 대거 등장 시청률 높아져

제중원은 병원이자 예배공동체, 일부 시청자들 “선교사 미화” 비판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큰 관심을 받지 않았던 헤론 선교사도 이 드라마에 등장한다. 그는 선교 방법론이나 제중원의 자금운용 등의 문제로 알랜과 갈등을 겪었다.

드라마가 방영된지 벌써 20회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달 5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검색어 순위에 알랜(Horace Newton Allen)선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가 통합검색어 2위에 랭크된 이유는 바로 이날 방영된 SBS 월화드라마 <제중원>의 방송직후였기 때문. 이날 방송분에서 구한말 기독교가 전해질 때 의료선교에 앞장섰던 알랜이 등장했다.

드라마에 선교사 ‘알랜’ 등장

지난달 4일 첫 방송된 이 드라마는 벌써 20회를 넘어서고 있다. 이 드라마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인 제중원(광혜원)을 배경으로 백정출신의 의학생, 선교사의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의 딸 여의사, 성군관 유생이 함께 동등하게 의술을 겨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제가 붕괴되어 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제중원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겠다는 게 제작진의 기획의도다. 이에 2회 방송분에서 ‘호러스 알랜’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특히, 극중 주인공인 백정의 아들 소근개(박우윤 분)가 총상을 입어 쓰러진 상황이라고 그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제중원 설립의 숨은 목적은 ‘선교’

알랜의 입기에 따르면 실제로 제중원에는 약 2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일을 도왔다. 정부의 주사, 조수(학생), 서기, 식당직, 사환 등을 맡은 이들이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오전에는 4~6시간 정도 수술을 했고, 오후에는 70명정도의 환자들을 진료

했다. 당시 의사로서의 임무에 충신했던 알랜이었으나, 병원 설립의 숨은 목적은 개신교 선교였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으나, 이 병원 수위의 아들이 전도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독교 금교령 등으로 1888년 5월~9월까지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금지되고, 그 이후에도 선교가 불법이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중원의 일부 학생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예배공동체 제중원 ‘교회’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이 선교 사역과 연관된 기독교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고 병원장(외부부대신)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이들 들은 병원장은 그러나 “자네들 스승 역시 선교사일세. 자네들이 조씨와 같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학교를 떠나도 좋네”라고 답했다. 알랜과 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병원 제중원은 병원이면서 동시에, ‘합법적’ 선교 현장이었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국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중원의 틈새에서는 예배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기독교와 초기 의료선교』의 저자인 신재의 의사는 “제중원은 병원일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인 교회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랜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제중원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예배, 성찬식, 세례 의식을 하는 교회를 설립했다는 문장이 한국기독교 역사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논증이다. 같은 책의 공저자인 경희대 김권정 교수도 “1890년대 정치사회변동 과정에서 제중원은 병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로서 서울지역 장로교회 개교회 설립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기독교 복음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청자들 “선교사 미화했다” 비판

하층민들과 함께한 헤론 선교사도 등장했다.

그러나 드라마 ‘제중원’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1, 2회가 방송된 후 시청자 게시판의 유지현 씨는 알랜에 대해서 “지금까지 1조원정도 조선의 재산을 팔아먹은 인물 을 가공해서 마치 위대한 의료 선교사로 날조” 하려한다며 비판했다. 이후 알랜이 운산광산의 채굴권,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업체에 주선한 것과 주한 미국공사가 되어 전등과 전차선로부설 등의 권리를 미국에 넘겨준 사례를 지적한 것.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는 “알랜을 통해서 미국의 모습을 미화하려는 정로 정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올라오고 있다. 알랜 선교사에 대해서는 한국 교계에서도 교회나 교단에 따라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이번 드라마 방영으로 그에 대한 토론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 알랜에 이어 제중원을 맡는 헤론(John W. Heron) 선교사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질에 걸려 단명한 탓에 그동안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왕이나 양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하던 알랜과는 달리 헤론은 제국주의적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하층민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그의 모습을 드라마 <제중원>이 비중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주인공 소근개는 실존인물 ‘박서양’ 모델 아버지 박성춘은 백정출신 세례교인으로, 열렬한 사회운동가

한편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근개(황정)는 백정 출신에서 의사가 된 실존인물 박서양을 모델로 했다. 박서양의 아버지는 박성춘으로 백정출신의 세례교인이다.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박성춘을 제 중 원 4대 원 장 에 비슨 (O.R.Avison) 선교사와 무어(S.F.Moore) 목사가 발견해 치료한 것이 인연이 됐다. 계급에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는 모습에 감동한 박성춘은 바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무어 목사가 인도하던 곤당골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두고 양반 교인들이 백정의 입교라며 항의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다. 그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홍문동교회다. 그런데 박성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백정 교인들을 계속 전도해 교회의 안정을 주도



세번째가 알랜 역을 맡은 선 리처드, 100대1의 경쟁률로 뽑혀진 주연급 역할이다. 공중파 드라마에서 선교사가 다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드라마는 36부작으로 매주 월, 화요일 9시55분에 SBS에서 방송되고 있다.

했다. 그는 또 만민공동회의 연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정치 사회적인 개혁운동에 열정적이었다. 교회를 떠났던 양반 교인들도 3년 만에 다시 곤당골교회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백정들을 열렬히 전도하며 사회운동에도 열심인 박성춘을 보며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며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 자신들이 백정출신 교인들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서 자라난 아들 박서양은 1908년 제중원을 졸업해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 일본의 국권침탈 이후에는 간도로 옮겨 병원과 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한다. 드라마 <제중원>에서 ‘황정’으로 묘사되는 그는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인술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개신교를 빼면 ‘제중원’ 설정 안 되는데...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제중원은 개신교라는 종교를 빼고는 온전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이례적으로 선교사가 비중있게 등장해 일부 시청자들이 뜬금없어 했지만, 사실상 ‘뜬금없음’이 아닌 것이다. 선교사들과의 얽힌 역사를 풀어내지 않으면 ‘제중원’ 자체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드라마 <제중원>을 보는 시청자들의 선교사에 대한 평가는 좋은, 나쁜든 한국 교계에는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평가에는 함당한 토론으로 맞서고 긍정적 평가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임으로, 한국기독교사를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개신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근현대사 사건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다. 독립협회도 개신교 공동체를 빼고는 온전

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밝혀내야 교과서를 쓰는 이들도 좋은 실든 ‘어쩔 수 없이’ 개신교를 끼워주지 않을까? 여러모로 이 드라마와 시청자들의 반응이 기대된다.

뉴스파워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일정

- | | |
|-------------|--|
| 1(월)~3(수) | 상주 청리교 회(김재원 목사) ☎(054)533-1611 |
| 4(목) 오전 | 주향찬양을동신학원(원장 박주향 목사) |
| 4(목) 저녁 | 평화의동산(임창 피종진 목사) ☎(041)852-2211 |
| 4(목)~5(금) | 서울 풍성한교회기도원(원장 최명자 목사) ☎ 011-9727-8352 |
| 5(금) 오전 | 한영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
| 8(월) 오전 | 인천 중동세계치유영성센터 ☎ 010-9292-5873 |
| | 주최: 세계치유부흥형의회(대표회장 민충만 목사) |
| 8(월)~11(목) | 서울 동산교 회(김성덕 목사) ☎(02)2208-5211 |
| 12(금) 저녁 | 총회이만교회온동분부(본부장 이정춘 목사) 교회설립세미나 |
| | 장소: 수도중앙교회 철원 담타수양관(장대영 목사) ☎(033)455-4005 |
| 13(토) 오후 | 대전시청 대강당, 이매라 글로벌 대전분교 예술제 |
| 15(월) 오후 | 부천 한국기독교목회자연수원(원장 이재범 목사) ☎(032)668-3191 |
| 15(월)~17(수) | 서울 한마음 교회(임미향 목사) ☎ 010-6201-8374 |
| 18(목)~20(토) | 부천 한우리교회(하태오 목사) ☎(032)684-5553 |
| 20(토) 오후 | 창원 실로암응답기도원(원장 배에스터 목사) ☎ 010-4055-9186 |
| 21(주일) 오후 | 부천 행복교회(이화평 목사) ☎(032)344-3313 |
| 21(주일) 저녁 | 일산 금란교회(주성민 목사) ☎(031)904-9125 |
| 22(월) 오전 | 목사햇볕회 목회자세미나 |
| 22(월) 오후 |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031)947-0091 |
| 22(월)~24(수) | 대전 새길교회(김정호 목사) ☎(042)483-2306 |
| 25(목) 저녁 | 인천중동세계치유선교센터 ☎ 010-9292-5873 |
| 29(월)~30(화) | 전주 동부교회(강성찬 목사) 평화통일연합성회 ☎(063)275-7760 |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피 종 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담임목사
조 광 표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성현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도심속의 실버타운 노년장기요양주·야간 및 단기보호) 사랑의 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3층
전화 : 032)525-2838, 204-2838, H·P 010)4423-2838
사랑의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102-13
전화 : 032)524-6884 팩스 : 032)508-2838 h.p : 010)4423-2838



치매,중풍,노환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이리신을 모시는 사랑의집입니다.
현대식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저렴한 비용으로 모십니다.
입원시설 완비! 어르신을 댁에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인터넷 '인천닷컴'에서 '치매'나 '중풍' 검색 (www.saranghouse.com)

- 매주 화,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사랑의집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력봉사:간병 청소, 목욕, 말벗, 급식, 외출동행 등 전문봉사:이·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목사의 성공적 가정교육

가난한 목사와 훌륭한 아들들

강원도 어느 산골에 아주 가난한 시골 목사님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분은 아들 4형제를 두셨다. 그 목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아들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목사님이 암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메디칼센터에서 입원을 하고 보니 암 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병이 다 나아 퇴원하는 줄 알고 기뻐했다. 그러나 병은 점점 깊어지고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 군복으로 입대한 큰아들은 어떤 선교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아버지는 많은 고생을 당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가 부인과 자식에게 남긴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오직 믿음과 많은 빚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 후에 사모님은 어떤 선교사 집에 들어가 가정부 노릇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과 가족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도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큰아들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에 돌아 온 큰아들은 광화문에 있는 작은 교회를 맡았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남의 압구정동에 배밭을 사놓았다. 그 목사님은 그곳으로 교회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수개

월 동안 기도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곳은 오늘날과 같은 신도시가 되었고 목사님이 사 놓은 그 배 밭은 신도시의 한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목사님은 그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이름을 광림교회라 하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되었다. 그목사는 바로 김선도 목사님이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4형제는 모두 우리나라에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었다. 기도로 4형제를 기르신 어머니는 지금도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 이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느 누가 감히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선전 목사님이 세상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것인가?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선교100년 파송 규모 · 지역 통계

2010년 2월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중인 기독교 선교사들은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8%는 유럽과 북미 출신들이며 나머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출신 선교사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선교 연구지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는 최신호에서 지난 1월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OMSC)가 발표한 '세계 종교 인구 및 세계 선교 연례 통계'를 기조로 1910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의 선교사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910년 전 세계 해외 선교사는 6만2000명으로 유럽 출신이 3만9950명, 북미 2만400명, 오세아니아 600명, 라틴 아메리카 400명, 아프리카 350명, 아시아 300명 이었다. 북미와 유럽에서 전체 선교사의 97.3%인 6만350명이 배출됐고 2.7%만 비서구권 선교사였다. 그러나 100년이 흐른 2010년까지 남반구 출신 선교사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13만5000명, 유럽 13만2800명, 라틴 아메리카 5만8400명, 아시아 4만7100명, 아프리카 2만700명, 오세아니아 6000명으로 비서구권 선교사가 37.1%인 13만2200명으로 증가했다. OMSC는 해외선교사 파송과 관련, 유럽

과 미국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륙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남반구에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교사 성장의 괄목할만한 변화의 하나로 '국내 선교사' (Home Missionary) 증가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 선교사들이란 자국내에 파송된 선교사들로 한 국가 안에 혼재된 다양한 언어·문화 종족들에게 파송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도와 나이지리아에서 왕성하다. 전 세계 선교사 40만명은 이들 선교사들을 포함한 숫자다. 세계 선교사들은 1910년 이후 증가를 거듭해오다 2006년 46만8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 2010년 2월 현재 40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세는 서구 선교사들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OMSC는 100년간의 또 다른 변화로 선교사들의 여행 거리를 꼽았다. 1910년 북미나 유럽 선교사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긴 거리의 위험한 여행을 했던 반면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해외 선교사들의 경우 인접 국가로 파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09년 10대 파송국가와 대륙별 파송 현황 등을 발표했다. 10대 파송 국가로는 1위가 동북아 A국으로 368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북미(북아메리카, 카리브해 포함) 1718명, 일본 1378명, 필리핀 1285명, 인도 728명 순이었다. 태국(622명), 러시아(612명), 인도네시아(597명), 독일(526명), 터키(4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선교사 2만여명 중 아시아(34개국)에 1만2485명이 파송됐고, 아메리카(25개국) 3167명, 유럽(40개국) 2068명, 아프리카/중동(58개국) 2055명, 오세아니아(11개국) 760명, 기타 지역에 1595명이 파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목기자 smshin@kmb.co.kr

지난 100년간의 세계 선교사 파송 변화 (단위:명)			
출신 대륙	1910년	2010년	
아프리카	350	20,700	
아시아	300	47,100	
유럽	39,950	132,800	
라틴 아메리카	400	58,400	
북미	20,400	135,000	
오세아니아	600	6,000	
총 계	62,000	400,000	

2009년 한국 선교사 10대 파송 국가			
국 가 명	사역단체수 (개)	전체 선교사수 (명)	
동북아 A국	163	3,688	
북미	87	1,718	
일본	97	1,378	
필리핀	103	1,285	
인도	76	728	
태국	69	622	
러시아	70	612	
인도네시아	57	597	
독일	32	526	
터키	57	482	
합 계		11,636	

칼럼

목회자가 알아야할 교회 법률(教會法律)



이원석 목사
(본지 상임고문)

1. 총회장과 임원의 권한
장로회 치리권은 교황정치나, 감동정치와는 달리,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정치총론 5). 그러므로 치리권은 당회장,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과 같은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 따라서 총회장이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으로는 일반회원과 동일하여, 오직 총회 결의에 구속될 뿐이다. 치리회란 이 의결기구인바 본회에서 결의하여 맡겨주지 아니한 사건은, 단 한 사건이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임의로 결의하거나 처결할 수 없으며, 만일 한다면 이는 장로회 헌법원리(憲法原理)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뒤집는 위헌처사가 된다. 총회가 파한 후 발생하는 사건이 아무리 긴급할지라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총회를 대리하여

결의하거나 처결할 수 없고, 오직 접수하여 차기 총회가 회집되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총회가 파하면 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단지 총회에서 맡겨준 안건(案件)이 있다면, 다른 상비부(常備部)나, 또는 위원회(委員會)와 동일한 성격으로 위임(委任)된 사항을 처결 집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맡기지도 않은 일까지 결의하거나, 마치 상비부나, 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인 것처럼, 상비부나 위원회의 임무까지 관여(關與)하거나 간섭한다면, 이는 권리남용과 월권이요 위헌적(違憲的) 행위이다. 총회장은 감독이나 교황과 같은 통치권자(치리권자)가 아니고, 오직 총회회의 의장(議長)일 뿐이다. 정치 제19장 1, 2조는 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총회장은 회의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의장의 권한밖에 없다. 즉 장로회 총회장은 치리권자가 아니라, 철저히 총회회의의 사회자일 뿐이요, 총회 결의로 그에게 처결하라고 맡겨준(결의) 사건이 있다면, 그 안전에 국한하여 처결할 수 있을 뿐이다. 장로회 정치가

중앙집권체제나 교권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장로회(長老會)가 아니다. 장로회 총회장은 회의시(會議時) 의장일뿐이다.

2. 치리권(治理權)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
결국 장로회정치에 있어서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으며 (웨산:정치 제14장 제1조, 합동:정치 제8장 제1조, 기장:정치 제8장 제41조, 합동보수:정치 제8장 1조, 합산:정치 14장 전문(前文), 개혁신:정치 제12장 제1조), 각급 치리회의 의결 기능은 성수가 회집된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으므로, 이같이 성수된 치리회의 처결에 의한 치리권 행사 이외의 치리권 행사(즉 이른바, 회장의 직권을 빙자한 치리권 행사와, 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전권위원회 혹은 조사처리위원회가 치리회(治理會) 이름을 빌자(憑藉)한, 일체의 치리권 행사를 가리킨다. 결국 권원(權原)없는 자들의 권리행사를 한 것인즉, 당연히 무효(無效)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목회자가 역올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예화 구겨진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설 수는 없다!



박태남 목사
(뱌엘교회)

잠옷을 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 식솔들이 한 자리에 모

이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잠옷을 하나씩 줄 테니 내일 아침 각자 잠옷을 입은 채로 다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여라!” 영문을 알지 못한 식솔들은 궁급해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대감의 명령대로 잠옷을 입은 채로 마당에 모였습나다. 그런데 모인 식솔들을 세심히 둘러본 대감이 그들 중 나이든 하녀 하나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호령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할 줄 알았냐?” 어서 흠쳐진 보물을 내놓지 못

할까?” 도대체 대감은 어떻게 범인을 찾아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잠옷이 가장 많이 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밤새도록 얹지락뒤지락 하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흠시, 거리낌과 가책으로 마구 구겨진 삶의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서 있지는 않을까요? 자, 더 늦기 전에 여기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웨신총회 7인 헌법위원 헌법수정작업 노회 수의 거쳐 찬반 결과로 가을 총회 결정

총회내 화두가 되고 있는 여목 문제는 4월 각 노회의 수의를 거쳐 찬반 결과에 따라 9월 총회에서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총회장의 발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2~23일 1박 2일간 용인 한화

리조트에서 헌법위원 7인이 모여 총회헌법을 수정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마쳤다. 아울러 여목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고생이 거듭된 가운데 4월 봄 노회 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노회의 수의를 거쳐 찬반 결과에 따라 가을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8th

목회자팀현장전도와 교회성장세미나

전도는 쉽다. 안될 수 없는 교회 부흥! 소금 전도법을 손에 넣어 가십시오. NCG 전도훈련대학과 선데이 축제 전도가 만나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 강 사



NCG 전도훈련대학교장
서울대영교회
담임목사 김창기

개회예배 설교자



한국도농선교회 회장
속초감리교회
담임목사 권태복

선데이축제 소금 전도법



한국도농선교회 본부장
대구공항교회
사무장로 최원수

세미나 안내

일시 : 2010년 4월 5일(월) 오후 2시-7일(수) 12시

장소 : 명성수양관 (전화) 033) 762-9998

교통 : 원주신림C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58-15)

대상 : 목회자 · 사모 · 신학생 · 각 교회 전도팀 · 전도의 열정을 가진 모든 성도들

등록비 : 사전등록 3만원/당일등록 5만원(5일 점심제공) 4/1일 까지 등록바랍니다

*문자등록 : 016-609-0695 (김영수목사)/홈페이지등록가능

주최 : 한국도농선교회 (Http://www.kcgm.net)

후원 : 한국도농선교회 전국지회 · 선교식품

문의전화 : 회장 권태복목사 011-375-4323 / 총무 한종근목사 010-7494-3927

서기 김영수목사 016-609-0695 / 본부 053) 961-0691~3

※ 세미나 참석한 교회가 전도용 소금 주문하시면 20% 더 드립니다.

도농선교회 소개

한국도농선교회 소개

한국도농선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증거하고, 강권하여 데려와서 사랑으로 양육하자'는 전도 표어 아래 개교회 전도집회 인도, 전도용 선물지원, 전도교육실시, 전도간증 인도, 전도를 위한 건강회복운동, 전도세미나, 선데이축제전도, 건강법 세미나 인도 등 다양한 사역을 전국 138개 지회가 연합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13 지부

서울1 형 남목사, 서울2 임재경목사, 인천 김진숙목사, 인천2 박경자목사, 경기 김영석목사, 강원 문종복목사, 충청 김용석목사, 충남 한종근목사, 대전 홍운유목사, 호남 김영수목사, 대구 김정성목사, 경북 김진천목사, 부산 원용국목사

한국도농선교회

고문 : 피종진목사, 이주달목사, 김종대목사

본부장 : 최원수장로

선임부회장 : 김용석목사

총무 : 한종근목사

서기 : 김영수목사

회계 : 이양수목사

자문위원 : 문종복목사

회장 : 권태복목사

부회장 : 서종석목사, 홍운유목사, 천성배목사

사무국장 : 백영삼목사

부서기 : 김종성목사

부회계 : 남성수사관

서울찬양율동신학원 2010년 1학기개강예배

대학원부 서울찬양신학연구원 장창윤 박사 사회로 진행돼



국내 최고의 찬양·율동·위십 전문인 서울찬양율동신학원(학장 선명숙 목사)은 2월18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소재 열린찬양신학연구원(장창윤 박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대학원부 서울찬양신학연구원 장창윤 박사 사회로 진행된 개강예배에서 정기남 목사(JTN 방송 저지스티임즈 대표이사)가 기도를 드렸으며, 복음가수 엄현숙 집사가 특송을, 본교 율동선교단의 위십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철학박사 이원석 목사가 “여호와께 영광을”하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태종 박사(서울찬양신학연구원,교무처장)가 봉헌기도를, 학장 선명숙목사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선명숙 학장은 서울캠퍼스를 개원하고 2010년 1학기 개강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면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안, 청주, 서울 등에 캠퍼스를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 지경을 넓혀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대학원장 장창윤 박사 교무처장 정태종 박사



인터뷰 서울찬양율동신학원 학장 선명숙 목사



천안 청주 등지에 찬양율동신학원을 이미 개원하고 많은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는 학장 선명숙 목사, 선 학장은 지난 2월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소재 열린찬양교회 장창윤 목사(서울찬양율동신학연구원)에서 서울찬양율동신학원을 개원, 2010년 1학기 강의가 시작됐다. 선명숙 목사님 천안, 청주 캠퍼스에 이어 서울찬양율동신학원을 개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몸찬양을 통해 위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한다면?

▲오늘 인터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본원을 시작하게 동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터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가 아쉽기만 했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라 목사님을 찾아가 부족했던 점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간단한 율동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아쉽기만 했지요, 그리고 이에라 목사님을 만났고, 안양에서부터 이 원장을 초청하고 몸찬양과 위십을 배웠습니다. 안양에서 천안으로 옮겨 찬양율동학원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청주 캠퍼스를 개원하고 학생들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서울찬양율동신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본원을 개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경인부흥사회를 통하여 대표회장인 장창윤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서울에 본원을 개설하는 데 있어 제안을 받았습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울찬양율동신학원을 설립

하게 되어 장창윤 목사님이 대학원장을 맡아주시고 제가 학장을 맡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학부 캠퍼스는 서울 천안 청주 3곳에서 몸찬양과 율동 위십을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본원에서 가르치는 각 과목은 몸찬양을 기본으로 젊은 청년들을 위한 모임이 있고요,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드라마위십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은 한국무용이 있습니다. 한국무용은 북, 장구, 국악찬양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율동이 있습니다. 또 본원의 교육은 몸찬양을 한 주간 3시간을 하고, 위십을 1시간을 가르치고 아동율동과 한국무용은 본인이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율동신학원에서 위십을 통한 영성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십을 통한 영성훈련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몸 찬양이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 위십이 있으며, 몸 찬양을 통한 기도로서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찬양율동을 통한 메시지 전달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며, (사43:21)말씀처럼 우리가 드릴 경건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본원을 통해 어떤 비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징을 말씀한다면? ▲앞으로의 저의 신학원의 비전과 계획은 천안, 청주, 서울캠퍼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찬양예술종합율동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을 통한 특징을 꼽는다면 형식적인 예배관을 영성훈련을 통해 바로 교육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진리로 드러야 할 예배와 찬양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형식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와 예배이며, 찬양을

통신학원의 운영방침은 몸찬양과 위십을 통한 메시지 전달과 꾸준한 노력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몸찬양과 드라마 위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는 있지만, 본신학원을 통해 찬양과 드라마 위십 영성훈련으로 경건하면서 말씀 중심에 서서 꾸준하게 교육한 결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저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영성훈련은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 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국악찬양 등 각 분과 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배와 찬양, 율동에 있어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개강예배이면 그 예배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개강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을 봅니다. 저의 찬양율동신학원은 예배 형태에 따라 구분을 두고 이점에 대해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몸찬양 율동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오직 말씀성경을 근거로 한 위십과 몸찬양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부활까지 연결 짓는 데 몸찬양과 위십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본원은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행사를 준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행사를 위해 교수들과 함께 금식기도를 합니다. 힘들지만 금식기도로 준비합니다. 많은 기도생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서울찬양율동신학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위십찬양과 몸찬양을 통해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 율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땅 끝까지 전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분들과의 협력과 교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 모집을 위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010-9955-7788 서울전화 : 02)862-3181, 3191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서울찬양신학연구원 / 서울찬양율동신학원) Http://5678.onmam.com

국내 최고의 찬양·율동·위십학당

서울찬양율동신학원

학부캠퍼스 : 천안찬양율동신학원 청주찬양율동신학원
대학원부 : 서울찬양신학연구원

대학원장 장창윤 박사

학장 선명숙 목사

문 의 : 010-9955-7788 서울전화 : 02)862-3181, 3191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530-22(서울찬양신학연구원 / 서울찬양율동신학원)
천안시 대흥동 57-45(천안역 광장빌딩) / 전화 : 041)523-1233

<http://5678.onmam.com>

서울 구로구 교구협 제91주년 삼일절 기념감사예배

구로구 복음화와 구로구청·구로경찰서 전 직원을 그리스도께...

제91주년 2010 삼일절 기념 감사예배가 2월 28일 주일오후 3시30분 서울 구로구 개봉1동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에서 드려져 부회장 박재욱 목사(준비위원장)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서기 조경식 목사가 기도를, 신우회장 최성규 집사가 마28:19-20절을 봉독하고, 구로중앙교회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별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지금 한국교회의 사명은?”이란 제하의 말씀을 부회장 윤기순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 구로경찰서 폴리얼 중창단의 특별찬양이 들려지고, 협동총무 윤병수 목사가 봉헌기도를, 대표회장 정영근 목사, 공동회장 양대웅 구청장의 인사말씀전했다. 정 대표회장은 3.1절 감사예배에 동참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실무진들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남현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특히 젊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30%가 3.1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른다는 실문 통계가 나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 가운데도 점점 잊어져가는 3.1운동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3.1운동의 정신으로 지역을 복음화를 위하여영적인 3.1운동이 일어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구로갑 이범래 의원, 구로을

박영선 의원, 부회장 김길진 목사, 김문겸 목사, 박주환 목사 등이 축사에 나섰다. 이어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준비위원장) 사회로 2부 특별기도회가 진행되어 1. 한국경제 회복과 대통령을 위해 부회장 김승복 목사, 2. 국민년 퇴보하지 않는 사회 및 협력을 위해 협동총무 조종환 목사, 3. 삼일절 기미독립만세를 외치고 순국한 선열들을 위해 협동총무 장창윤 목사, 4. 광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해 최동욱 국장(구로구청 신우회고문), 5.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여 서로 돕기 위해서 유제광 경감(구로경찰서 신우회 고문), 6.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전직원 신자화하기 위해 지도위원 서재석 목사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지도위원)는 환영사를,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가 광고와 내빈소개를 한 후 이춘복 목사 축도로 예배와 행사를 마쳤다. 이날 구로구 교회와 구청협의회(교구협의회)가 주최하고, 구로구청 신우회(회장 배세영 집사), 구로경찰서 신우회(회장 최성규 집사), 구로보건소 신우회, 남현교회(이춘복 목사), 성문교회(정영근 목사), 베다니교회(박주환 목사), 구로동감리교회(김길진 목사), 오류동성결교회(조종환 목사), 연희미용고등학교(교장 박재욱 목사), 초운교회(김문겸 목



서울 구로 교구협의회 3.1절 감사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서울 구로 교구협의회 3.1절 감사예배에 구로경찰서 폴리얼 중창단의 특별찬양.

사), 남도교회(김상용 목사), 오류동 회(윤기순 목사), 함께하는치과(사남부교회(서규장 목사), 구로중앙교무장 오훈택) 등이 후원했다.

백석대 신학생들이여,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라

조용기 목사, 백석대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서 강사로 나서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가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에게 “2천 년 전 기적을 베푸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를 전하라”고 조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됐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3일 개강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용기 목사는 200여 명의 신대원생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앞서 가는 선배의 마음으로 교회 개척 당시의 어려움과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루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 조목사는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달동네에서의 첫 목회를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다. 조목사가 “목회 현장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말 그대로 신학은 신학교고 현실은 현실이었다”고 말하자 신대원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 사는 삶이 지옥인데 어디 지옥이 있는냐는 동네아주머니의 고함소리와 귀신 들린 의사 부인이 새벽기도에 와서 소름끼치게 웃는 상황에서 는 도저히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신학을 잘못 알았다. 나는 죄 지은 자는 죄를 용서해 주었고, 귀신들린 사람에는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은 낫게 해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그 때 이후 평생의 목회 방향이었던 ‘희망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조목사는 회고했다. 이어 조목사는 “옛날에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조롱을 받았을 뿐”이라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고백했다. 당시 가난하고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았고 교회가 부흥돼 지금의 여의도에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다. 꿈과 목표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집중하게 된다. 계속된 설교에서 조목사는 이들 신학생들에게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목회의 길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마음에 분명한 것이 있으면 방향하지 않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목사는 “늘 분명한 꿈을 그리고 집중하라”면서 “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에 집중했을 때 오늘날 까지 왔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주의 종은 온갖 시련과 환란을 경험하지만, 내 체함으로 볼 때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며 “여러분에게 체함을 해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과 병, 고통과 같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만 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신학생들을 격려했다. 조목사는 설교말미에서 자신이 현재 파킨슨 병에 걸려 있음을 고백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희망 목회를 한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 영성을 게발해 4차원 영성으로 나를 돌아본 것밖에는 없다”며 “나이 70이 넘으면서 파킨슨이라는 병에 걸려 손발이 굳어지고 입이 굳어지지만, 나는 휠체어만 내 모습이야 니라 건강하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내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말해 신대원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은 예정백석 산하 신대원으로 예정백석 교단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각각

대한민국 국회, 이제 뭘니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회는 부시 정부가 요청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법안을 불과 2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은 관련 상임위를 풀가동해 26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의원들은 선거기간 중이었음에도 유

세를 중단하고 의회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은 차기 정권의 항배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 요청한 경기진작책을 의회에서 군말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부를 에먹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당인 자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야당들도 사안에 따라 초당적으로 정부에 협조하거나, 적어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추석용 민생 선물세트로 마련한 4조2677억 원의 추가경

정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동의안도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수시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처리를 회피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헌법에 정해진 처리기한은 12월 2일까지인데 13일야야 처리됐고,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

과시켜야 했습니다. 불과 5개 의석 밖에 갖지 않은 민주노동당은 온갖 횡포와 생떼로 예산안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사위 회의 진행을 8, 9일 이틀간 불발시키기도 했습니다. 284조5000억 원의 내년 예산은 경기를 진작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보듬기 위한 피 같은 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풀려야 그만큼 효과도 더 클 텐데 야당들은 이것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 전쟁’에 이어 ‘법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 등을 연내에 통과시키려 하지만, 민주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모든 상임위 참석을 보이콧함으로써 국회 운영 자체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국회에서 전쟁이라는 용어가 공

공연히 나도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왜 선진국과 같은 국회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여야가 평소 예 티격태격하다가도 국가에 위기가 닥치면 서로 합심해 대처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오히려 위기 앞에서 더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선진국 국회를 수입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신비의 만복 어성초

비만, 아토피, 각종 암에 특효

제품명 : 건초

▶음용방법 : 건초 10g을 주머니에 넣어 물 2리터를 붓고 약 20분정도 달여서 찌수에 관계없이 온가족이 수시로 드시면 됩니(반드시 냉장보관)

▶생산자 : 만복 어성초 농장(완전 유기농 : 농약·화학비료무)

만복수양관 예배시간

매주 금요일 야성회(밤 10시)

성회시간 : 새벽6시 / 오전11시 / 저녁8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443번지

TEL : 041-733-1116, 733-3970

H.P : 010-3176-6191, 010-3403-0675

[찾아오시는 길]

차량운행 기독교방사회관

차량대기 오전10시, 오후6시

※제품의 판매금액은 작은 교회 돕기에 쓰여집니다.

벌곡

기적소리가든

흑석리 사거리

가수원 사거리

서대전 IC

유성

흑석리 파출소

장태산

대전

만복수양관

어곡가든